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29.(월) 11:00
(지면) 2024. 1. 30.(화) 조간

배포 2024. 1. 29.(월) 06:00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 완료

- 복합물류·업무편의시설 등 항만시설용 부지 67.2만㎡ 공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보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을 1월 30일(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복합물류·제조 52.3만㎡, 업무·편의 14.9만㎡, 도로·녹지 27.1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2018년 2월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준공한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과 같은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항만 내 물류기업 유치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인천신항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책임자	과 장	주상호 (044-200-5960)
		담당자	사무관	홍근순 (044-200-5969)

참고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치/면적)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인천신항 일원/943천m²(약285천 평)
- (총사업비/사업기간) 1,371억원 / '18~'24(공사기간 27개월)
- (사업방식) 총사업비 범위내 토지 취득(항만법 제15조)
- (토지이용계획)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 (사업시행자/출자자) 인천신항배후단지(주)/HDC현대산업개발 외 4개사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8.2.28) 사업의향서 제출(HDC현대산업개발)
- ('18.6.29) 사업제안서 접수
- ('18.7.~'19.3.) 사업제안서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검토(KMI)
- ('19.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19.12)
- ('21.7.) 실시계획승인 승인, ('21.10.25) 공사착공, ('24.1.30) 준공

< 사업위치 평면도 >

